

여수시, 산단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총력

이론·체험 병행... 통합안전교육 부주의 안전 사고 발생 예방 목표 70여건 사고 36% 작업자 부주의 VR체험 등 현장 중심 맞춤 교육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최근 여수시 주삼동 미래혁신지구에 위치한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아는 만큼 더 안전해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산단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내년 이론·체험을 병행한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 것.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통합안전교육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무주의로 인한 사고'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론·체험을 병행한 전국 최초 프로그램이다.

최근 5년 동안 여수국가산단 사고는 총 7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5건이 떨어짐과 넘어짐, 부딪힘, 끼임 등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다.

이들 사고 대부분이 근속기간이 짧은 협력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여수산단 통합안전교육 시범사업은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지난 9월 시작돼 12월 까지 총 16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은 사전수요조사에서 교육을 희망한 24개사 1700여 명(1695명)이었으나 '교육 시간의 근로 시간 인정(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평가 시 교육 이수 실적 반영' 등의 조건 수용이 가능한 사업장 근로자 400여명으로 확정됐다.

교육 장소는 여수시 주삼동 미래혁신지구에 위치한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전국 7개의 교육장 가운데 유일하게 석유화학체험관을 갖춘 국내 최첨단시설이다.

교육은 '사고사례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 핵심형 이론 강의와 '안전체험교육장의 전문 시설을 이용한 VR체험교육'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여수소방서와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여수산단 통합안전관리지침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추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과 각 유관기관별로 축적된 안전교육 노하우가 담겼다"며 "내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 실시되면 산단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기자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 출시 2주년 이벤트

22일까지 음식점·특산품 20% 관광지·숙소 1만원 등 할인

여수시가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 출시 2주년을 기념해 '여수엔'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용자는 '여수엔' 앱에서 음식점, 숙소, 유료 관광지 등 사전 예약 시 결제장에서 자동 발급된 쿠폰을 사용해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음식점·특산품 20% △관광지·숙소·렌터카 각 1회 1만원 △집배

송 서비스 50%다.

'여수엔'은 여수의 관광지, 숙소, 음식점, 편의시설, 교통안내 등 관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 및 비대면 주문, 간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엔 출시 2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할인 이벤트와 함께 가족, 친구, 연인과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



국제와이즈멘 여수지방 한려클럽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울촌면 취약계층 3가구에 연탄 8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중소기업·공공기관 대상, ESG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여수시는 지난 5일 여수문화홀에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2024 여수시 ESG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를 이해하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ESG 전문 강사를 통해 ESG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동향 분석, ESG

오해와 진실, ESG 추세와 국내외 동향 등으로 이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있어 ESG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ESG 경영 컨설팅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

국제와이즈멘 여수한려클럽, 연탄 나눔 봉사

국제와이즈멘 여수지방 한려클럽(회장 장승준)이 지난달 30일 울촌면 내 취약계층 3가구에 연탄 800장과 선물꾸러미를 후원하는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봉사에는 회

원 20여 명이 참여해 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날라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장승준 회장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매년 생활이 어려운 세대

를 찾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차주민 울촌면장은 "따뜻한 온기를 선물해준 여수한려클럽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다양한 봉사단체와 연계해 어려운 세대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

내년 상반기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 모집

미취업청년 대상... 200명

여수시가 미취업 청년의 실무 경험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참여자를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여수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18~45세 미취업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2019~2024년 본 사업에 참여했다면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문서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청 경제일자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4일 공개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27일 선발 결과를 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인턴은 신청 시 기재한 희망 기관과 보유 자격증, 전공, 거주지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무지에 배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061-659-3623)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명 시장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며 청년들의 진로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근무 기관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

여수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 2050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관련 부서장, 용역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전남도 상위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



여수시가 지난 5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립 선도도시 여수'라는 비전을 제시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자문회의, 설문조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가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